

# 조선조 17세기 궁궐건축공사에 종사한 목수편수에 대하여

金東旭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 I. 머리글

조선시대 궁궐건축의 변천과정에서 17세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선전기에 창건되었던 3개의 궁궐이 16세기 말 임진왜란으로 모두 소실되고 17세기에 들어와 그중 창덕궁과 창경궁 두 곳이 재건되었으며 새로 경덕궁과 인경궁이 창건되었을 뿐 아니라 창덕궁 창경궁 내에서는 내전들이 한 차례 소실되었다가 재건되고 또 새로운 시설이 조성되는 등의 변화가 이어졌다. 따라서 17세기는 궁궐건축이 새로 조성되는 한편 연속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된 시기이며 이런 점에서 5백년간의 궁궐 조영사상의 커다란 변화의 기점이 될 수 있다.

이 시기 궁궐건축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여러 방면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당시 건축공사에 종사한 감독관이나 공장 등 공사종사자의 조직 또는 그들의 활동내용 역시 당대 건축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연구성과로 당시의 공사 진행방식과 공장의 조직이 고찰된 바 있다. 즉 당시의 공사는 도감이라는 임시기관이 공사진행을 전담하고 도감은 고위 관료와 하급 무관 등으로 구성되

어 여러 개의 작업소로 일을 분담하여 진행하였음이 밝혀졌으며 공사에 동원되는 공장은 관청에 속한 소위 관공장 외에 여러 궁가나 군영에 속한 노비들 그리고 도성내나 지방에 거주하는 비관속공장들도 모두 동원되었고 이들은 강제성을 띤 부역노동으로 공사에 동원되었음이 고찰된 바 있다.<sup>1)</sup>

이 글은 이들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17세기 궁궐건축공사에 종사한 공장들 중 특히 건축물의 형태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목수편수를 대상으로 삼아 그들이 처한 작업여건과 역할 그리고 공사에 종사한 주요 목수편수들의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편수(邊首)는 일반적으로 장인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명칭이며<sup>2)</sup> 17세기 이후 조선후

1) 中西章, 朝鮮17世紀における「營建都監」のついで, 1984년 10월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集 및 金東旭, 17世紀宮闈造營에 있어서의 工匠組織, 大韓建築學會誌, 1984년 12월 참조

2) 편수는 일반적인 사전 풀이로는 목수의 우두머리로 정의되며(민중서관편 국어대사전), 역사적으로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그 명칭이 15세기경부터 사료에 보이기 시작하다가 17세기 이후로는 건축공장을 지칭하는 일반

기의 건축공사 관련 문헌에 자주 등장한다. 특히 궁궐이나 왕실사당과 같은 관영건축공사에서는 목수편수 석수편수 니장편수 등이 건축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존재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목수편수는 건축물의 목조부를 다루는 목수의 우두머리로 건물의 구조나 세부표현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된다.

같은 전적으로 17세기 궁궐 건축공사를 기록한 의궤서를 이용하여 이들 문헌에 적힌 내용을 정리하여 전개하기로 한다. 17세기에는 창덕궁과 창경궁의 재건을 비롯한 수 많은 중요한 궁궐건축공사가 이루어졌지만 이 가운데 공사내용을 적은 의궤서가 전해지고 있는 것은 17세기 중반 이후의 아래와 같은 일련의 공사들이다. 즉 1633년(인조 11)의 창경궁 수리, 1647년(인조 25)의 창덕궁 수리, 1656년(효종 7)의 창덕궁만수전수리, 1667년(현종 8)의 집상전수리, 1694년(숙종 19)의 경덕궁수리이며 이 밖에 궁궐은 아니지만 공사내용이 이와 비슷한 것으로 1667년(현종 8)의 영녕전수리, 1677년(숙종 8)의 남별전중건공사가 역시 의궤서를 남기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의궤서의 내용을 통하여 17세기 궁궐건축의 공사방식을 정리하여 목수편수를 비롯한 일반장인은 어떻게 조직되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여건 속에서 목수편수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고찰해보고 또한 이 시기 각 궁궐공사에 목수편수로 활동한 인물들의 활동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II. 17세기 궁궐건축의 공사방식과 공장동원

17세기 일련의 궁궐건축 공사는 공통적으로 관이 모든 작업을 주관하는 관 직영 형태를 취하였으며 임시관청인 도감안에 다시 각 작업내용별로

작업소를 설치하여 각 작업소별로 감독관과 공장이 따로따로 조직되어 공사를 집행하였다. 이 때 작업소는 여러 건물을 한꺼번에 지을 경우 몇 개의 중요한 건물별로 조직되고 그와 별도로 철물을 담당하거나 석재를 운반하는 작업소가 조직되며 단일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돌공사, 목공사, 기와 및 철공사 등 작업내용에 따라 별도의 작업소를 조직하였다. 각 작업소에 조직된 공장들은 목수 석수 니장 등 주요 직종에 한하여 직종의 우두머리인 편수가 구성되었는데 편수는 대개 직종마다 1명 또는 2명 정도였다.

이제 구체적인 공사방식과 공장조직의 사례를 알아보기로 하며 우선 당시 가장 공사규모가 컸던 창덕궁수리공사에 대해 창덕궁수리도감의궤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공사는 17세기 초 재건되었던 궁궐이 인조반정으로 내전과 외전 일부가 소실되었던 것을 이 해에 와서 재건한 것으로 외전의 선정전과 내전의 대부분의 전각을 다시 짓는 공사였다.

공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창덕궁수리도감이 설치되고 최고 책임자로는 당시 영의정이 임명되었으며 그 아래 공조 병조 호조 판서가 들어가고 실제 공사를 총괄 감독하는 도청과 낭청이 구성되고 다시 그 아래 8개의 작업소가 조직되었다. 작업소는 각 전각들을 담당하는 곳이 5개소이고 그 외에 철물제작을 맡은 노야소 각종 기물제작이나 조달을 맡은 별공작소 그리고 인경궁분소로 이루어졌는데 이 공사에서는 소요자재를 주로 인경궁의 전각을 철거하여 전용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전담하는 작업소를 따로 두었다. 1소에서 5소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1소는 대조전 징광루 집상당 등을, 2소는 희정당과 주변 월랑을, 3소는 보경당 태화당 등을, 4소는 선정전과 주변 월랑을, 5소는 인정전주변 월랑을 각각 맡았다. 각 작업소에는 낭청과 감조관이라는 직책을 맡은 관리가 있고 그 아래에 공장이나 역부들을 통솔하는 영역부장이 있고 그 밑으로 실제 작업을 담당하는 공장 과 잡역부들이 있다. 이때 각 작업소에 소속된 장인들은 대개 한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직종의 장인들이 거의 망라되며 노야소에는 주로 대장장이가 들어 있다. 한 예로 대조전 등을 담당

호칭으로 사료에 빈번하게 쓰인다. 특히 18세기 이후 불교사원에서는 도편수로 자주 표기되며 궁궐공사 관계문헌에서는 편수로 표기되고 읽히는 것이 보통이다. (金東旭, 朝鮮時代造營組織研究, 大韓建築學會誌, 1983년 8, 12월 참조)

한 제1소의 경우 장인의 직종과 숫자를 보면 화원 3, 목수 91, 석수 60, 야장 3, 박배장 2, 니장 19, 칠장 25, 목소장 1, 소목장 3, 안자장 2, 제각장 3, 기계편수 1명 외에 따로 칠을 담당하는 칠장 33, 화승 58, 그리고 담장 쌓는 작업을 한 목수가 16명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중에 칠장과 담장 쌓는 일을 한 목수중에는 이름이 중복되어 기재된 경우가 있어서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대체로 제1소에 소속된 장인은 모두 13직종에 3백명이 넘는 인원이 작업에 임했던 것이다. 이들 장인 중에 일부는 지방에서 올라온 향장으로 의례에는 출신지역이 명시되었고 또한 이들 향장 중 일부는 승려 신분임을 밝히고 있다. 향장은 목수가 49명 석수가 34명 니장이 4명 화승이 58명 전원이며 이중 승려는 목수 5명 석수 1명 그리고 화승 전원이다.

한편 일부 직종에는 장인 중 우두머리가 정하여져서 편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편수는 목수, 석수, 니장, 칠장에 각 1명이 들어 있다.

제2소에서 제5소까지의 나머지 작업소의 경우 인원구성이 제1소와 거의 같은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단지 인원수에서 약간의 가감이 있을 뿐이다. 즉 제2소에서 5소까지의 각 작업소는 각기 낭청과 감조관 및 영역부장(領役部將)이 있고 그 밑에 공장이 대체로 1소와 유사한 십여종의 직종에 1백 명에서 2백 명 정도로 구성되고 이들 중 목수와 석수 및 화승은 지방 출신 장인과 일부 승려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목수 석수 니장 등 일부 주요한 직종에 대하여 1소와 마찬가지로 1명 정도의 편수 정해져 있다.

창덕궁수리공사 외에 현재 의례서가 전해지는 나머지 각 궁궐 공사에서도 공사방식이나 공장조직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만 나머지 여러 공사 가운데 대개는 한꺼번에 여러동의 건물을 수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반하여 집상전수리공사는 단일 건물을 수리하는 것이 다르며 궁궐은 아니지만 영녕전수리와 남별전수리공사가 역시 단일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각 공사는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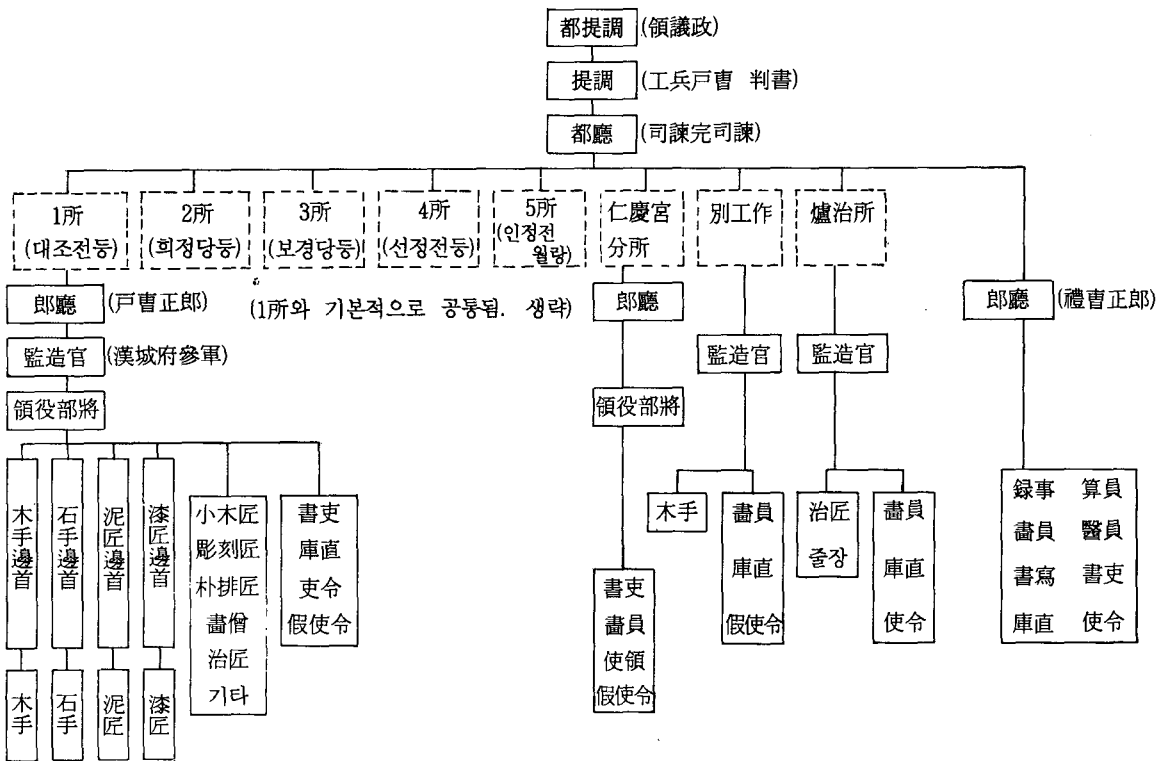


표1 1647년 창덕궁 수리공사의 공사증사자 조직표(창덕궁수리동감의례에서)

사를 전담하는 도감 또는 수리소가 설치되고 그 아래 여러 개의 작업소가 조직되어 이들 작업소별로 감독관과 공장이 구성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각 작업소별로 목수 석수 니장 등 주요 직종에 한하여 역시 1명 또는 2명 정도의 편수가 구성되어 있다. 다만 작업소의 구성에서는 여러 동의 건물을 한꺼번에 짓는 경우 한 작업소가 몇 동의 건물을 담당하도록 한데 반하여 단일건물을 짓는 공사의 경우 작업소는 목조부 석조부 마감공사부등 작업내용에 의해 세분되는 점이 달랐다. 그러한 예를 1667년의 영녕전수리공사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공사는 기존의 영녕전정전을 개축하는 것이었으며 공사를 맡을 관청으로 영녕전수개도감이 설치되고 당시 영의정이 도제조를 맡고 예조 병조 공조판서 등이 제조를 맡는 등 기본 구성은 다른 것과 같다. 그러나 작업소의 구성에서는 공사대상이 단일건물이었으므로 각 작업소가 건물의 여러 부분을 분담하였다. 즉 작업소는 4개소로 나뉘었는데 제1소는 목조공사를 맡고 제2소는 기단과 초석 등 석조부를 맡고 제3소는 벽체를 쌓는 토공사와 마무리 칠을 하는 단청일 그리고 지붕을 올리는 기와공사를 맡았고 따로 별공작소가 있어서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철물이나 기물 제작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작업소의 역할이 건물의 각 부분작업에 한정됨에 따라 작업소에 들어가는 공장들도 직종에 따라 분산되었는데 제1소는 작업이 목조부였으므로 공장장은 목수, 소목장, 조각장, 톱장등이 주를 이루었고 제2소에서는 석수 니장 야장만이 들어 있고 제3소에는 목수 소목장 석수 약간명 외에 주로 칠장과 기와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적은 영녕전수개도감의례에는 공장명단에 편수가 누구인지를 명시해 놓고 있지 않아서 각 작업소에서 편수가 몇 명이 들어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의례의 본문 중에는 목수편수로부터 작업에 대한 보고를 적은 내용이 있어서 적어도 공사에 목수편수가 있었음을 알리고 있다.

이상 몇몇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17세기 궁궐 공사는 철저한 관직영 체제하에 공사규모가 큰 경우 몇 동의 건물단위로 여러 개의 작업소로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고 단일 건물 공사일 경우 목공

사 돌공사 마감 및 지붕공사등으로 작업 내용을 나누어 각 작업소별로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알았다. 이 경우 각 작업소는 별도로 공사 감독관과 공장들을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여러 건물을 지을 경우 장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작업소내의 공사에만 한정되어 작업하였고 단일 건물을 짓는 공사에서는 석공은 돌공사만을 목수는 목조부분만을 담당하고 벽체의 마감 등은 화원이나 칠장이 각기 별도의 작업소에서 작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때 편수는 각 작업소별로 목수 석수 니장 등 주요직종에 한하여 1명 또는 2명이 구성되어 있었다.

### Ⅲ. 궁궐건축공사에서 목수편수의 역할

관 직영 방식이래 각 작업소별로 감독관과 공장을 조직하여 진행하는 17세기 궁궐건축 공사에서 목수편수가 맡은 역할은 대체로 건물을 짓는 기술적인 문제 즉 건물의 구조형식이나 세부 부재형상의 처리를 결정하는데 주도적이었으며 반면에 공사의 전체 계획이나 각 건물의 좌향을 결정하는 문제에서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였다고 추정된다.

목수편수가 건축물의 구조나 세부형상을 결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은 17세기 궁궐공사의 공사조직을 관찰해 볼 때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목수편수는 하나의 작업소 안에서 목수의 우두머리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숫자도 1명 또는 2명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대개 한 작업소는 낭청 및 감조관과 영역부장이라는 몇 명의 관리가 공사를 감독 지휘하고 그 아래 여러 직종의 장인들이 구성되고 목수 석수 니장 등 주요 직종에 한하여 편수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 때 감조관이나 영역부장은 대개 그 신분이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역할이 일반 공장들이나 잡역부들의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데 그쳤고 건물의 기술적인 문제를 다룰 수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각 작업소가 맡은 공사의 기술적인 문제 해결은 아무래도 장인들에게 맡겨졌을 것이며 이들 중 우두머리인 편수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편수는 대개 목수편수 외에 석수편수, 니장편수가 있었고 또한 각 편수 사이에 어떤 상하관계가 엮이지 않았기 때문에 목수편수의 역할은 석수편수나 니장편수와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로 건물 목조 부분의 처리에 국한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기단이나 초석을 제외한 건물의 뼈대 그리고 공포 등 세부의 처리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물의 뼈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물의 전체 규모 즉 정면과 측면의 칸수 및 층수지붕 형태 등이 미리 설정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건물 전체 규모에 대한 구상도 목수편수의 역할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면에서 같은 편수라도 목수편수의 역할은 석수편수나 니장편수에 비하여 더 큰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7세기 궁궐공사에서 목수편수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몇 가지 관련 사례를 의궤서와 기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 한 두 예를 보면, 우선 1694년 경덕궁수리소의궤에는 당시 경덕궁 자정전에 쓰일 꼭보, 즉 휘어진 보에 쓸 재목조달을 위하여 수리소가 강원감사에 보낸 문서 중에 “꼭보의 형상은 문자로 상세하게 적어 보내기가 불가하므로 적합한 목재를 살펴서 베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목수편수 김갑신을 감영에 보낼 터이니 물가의 목물소 관리에게 분부하여 장인의 말하는 바에 따라 꼭보에 적합한 재목 3조를 취하여” 보낼 것을 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리소는 병조에 공문을 내어 목수 김갑신에게 기마 1필을 내어주고 말의 먹이를 조달해 줄 것을 분부하고 있다.

또한 경덕궁창건이 진행되었던 1617년(광해군 9)의 광해군일기 기사 중에는 공사를 맡은 선수도감에서 궁내 각 아문의 규모를 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던 경운궁 규모를 조사시키면서 “목수편수를 경운궁에 보내어 아문의 칸수를 세어보도록 하니 대체로 6백여칸에 이르렀다고 하므로” 경덕궁에서도 6백칸에 소요되는 재목을 준비하도록 명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위의 두 기사를 보면 당시 궁궐공사에서 목수편수가 특수한 형상의 재목을 산정하기 위하여 멀리 강원도까지 파견을 가고 이를 위하여 관이 말을 내어주며 또한 기존 건물의 규모를 조사하여

새로 짓는 궁의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단편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런 기사 내용을 보고 또 궁궐공사의 전체 공사조직을 살펴볼 때 목수편수는 적어도 건물의 구조나 세부형상을 결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였고 다른 석수편수나 니장편수보다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건물의 전체 계획이나 좌향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시기 궁궐 건축공사에 관한 한 목수편수의 역할은 제한된 것이었고 오히려 당시 공사를 책임 맡은 도감의 관리나 그 밖에 고위관료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고 특히 건물 좌향의 결정에는 지관(地官)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615년(광해군 7), 창경궁의 문정전을 지을 때 기둥을 원주로 할 것인지 방주로 할 것인지는 어전회의에서 원주를 주장하는 왕과 방주로 지어야 한다는 신하들간의 격렬한 논쟁거리가 되었고 그 좌향에서도 풍수가의 말을 듣고 남향을 하려는 왕과 원래대로 동향으로 하자는 신하간의 대립이 있었다. 그 2, 3년 후 경덕궁과 인경궁을 새로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건물의 기본적인 구성이나 형태를 정하는 것이나 지붕을 청기와로 덮는다는지 하는 제반 문제들이 대부분 어전회의에서 결정되었다. 특히 이때 왕은 측근의 몇몇 풍수가들을 신임하고 있어서 모든 공사의 진행에서 이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창덕궁 만수전수리도감의궤에는 1656년 만수전과 주변 여러 전각을 새로 조성하면서 만수전 춘회전 등 주요전각의 좌향을 결정하는 데 지관이 두 전각 모두 자좌오향 즉 남향이 길하다고 보고한 데 따라 좌향을 결정하는 기사가 보인다.

물론 건축공사 내용을 어전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특별히 논의가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 국한되기도 하며 건물좌향 역시 특별히 중요한 전각을 새로 조성할 때에 한해서 지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내용의 공사는 작업을 책임 맡은 도감에서 적절히 결정하고 처리하였을 것이며 이 때 도감에서는 역시 건축기술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목수편수 등의 의견을

들어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목수편수와 같은 우두머리 장인들은 주요 건물의 규모나 배치 또는 주변 행랑 등의 구성에 대한 제반 계획과 시공을 주관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다만 이들의 역할 이전에 특히 궁궐건축에서는 전체규모나 배치 좌향 등에 대해서는 위로는 왕에서부터 고위 관료 또는 왕실 주변의 풍수가 등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수편수가 갖는 역할은 소극적인 참여에 국한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추정되는 것이다.

#### IV. 주요 목수편수들의 활동

17세기 궁궐과 왕실사당 공사내용을 기록한 일련의 의궤서에 적힌 공장들의 이름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상당수의 목수나 석수들이 거의 연속적으로 궁궐공사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중에는 같은 인물이 연속해서 여러 궁궐공사에 목수편수로 활동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당시 창덕궁이나 창경궁·경덕궁 등 여러 궁궐의 건물들이 같은 사람에 의해 조성되고 특히 구조형식이나 세부 장식 결정에 큰 역할을 한 목수편수가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이 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각 궁궐 전각간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표-2는 1633년 창경궁수리공사에서 1677년 남별전수리공사까지 44년 동안 있었던 일련의 관영건축공사 8건을 대상으로 각 공사의 의궤서에 적힌 공장명단을 보고 그중에 목수만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히 공사 참여도가 높은 일반 목수와 목수편수로 일한 경험이 있는 인물의 작업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가운데 편수가 아닌 일반 목수는 8건의 공사중 5차례 이상 작업에 종사한 사람만을 표에 집어넣었는데 4차례에 걸쳐 종사한 목수는 그 숫자가 거의 20명에 가까워서 표에는 삽입하지 못하였다. 목수편수 중에는 경덕궁수리때 곡보를 얻으러 강원도에 다녀온 김갑신과 같은 인물이 있지만 의궤공장 명단에는 그의 이름만 적고

편수라고 따로 명시해 놓지 않아 표에 집어넣지 않았고 그 밖에도 일부 의궤에는 편수를 따로 명시해 놓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표에 삽입되지 못하였다.

표에 정리된 사람들의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郭起宗 : 광기종은 17세기 궁궐공사에 종사한 목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광은 1633년 창경궁공사 때 이름이 보이기 시작하여 1647년 창덕궁 수리 때는 제1소의 편수를 맡아 창덕궁 내전의 정전인 대조전공사를 맡았으며 이듬해 동궁초소인 저승전공사 때도 그 중심건물인 저승전 공사의 편수를 맡았고 1656년 만수전공사 때도 제1소 편수로 만수전일을 하였다. 그 사이 1652년 창덕궁 창덕궁수리 때는 역시 가장 중심건물인 대조전등의 수리를 맡았는데 이 공사 의궤에 편수가 따로 명시되지 않아서 단정기는 어렵지만 그의 이름이 목수 명단 제일 첫머리에 나오고 있어서 역시 편수를 맡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만수전공사 때는 명칭이 도편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시 일반 편수와 큰 차이는 없지만 아무튼 그의 역할이 당시 다른 목수편수보다도 한 단계 중요시 되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결국 광기종은 17세기 중반의 일련의 궁궐공사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건물의 목수편수로 도맡아 해왔으며 그런 점에서 당시 목수 중 가장 대표적인 존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② 李春奉 : 이춘봉은 광기종과 거의 같은 기간에 같은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대체로 광기종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건물의 편수를 맡았다. 즉 창덕궁수리에서는 제2소의 편수로 보경당 등을, 이듬해 저승전공사 때는 손지각 등을 지은 우소의 편수로, 만수전공사 때는 제3소 편수로 춘취전 월랑공사를 맡았다. 따라서 이춘봉은 아마도 당시 광기종에 다음가는 명성을 가진 목수였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③ 姜大永, 金男, 金應善, 吳鳳鶴, 李小知 : 이들은 대개 여러 차례 공사에 종사하다 한두 번 정도 편수를 맡은 사람들이다. 특히 김남, 김응선의 경우는 5, 6차례나 계속해서 공사에 종사해 오다가 마지막 1667년 집상전 공사에서 편수를

공사명 목수명	공사명 년도	창경궁수리 (1633)	창덕궁수리 (1648)	저승전수리 (1648)	창덕궁창경궁 수리(1652)	창덕궁만수전 수리(1656)	영녕전수개 (1667)	창덕궁집상전 수리(1667)	남별전증건 (1677)
姜大永				저승전	대조전등	춘휘전 (편수)			
郭起宗	환경전	대조전등 (편수)	저승전 (편수)	대조전등	대조전등	만수전 (도편수)			
金男	환경전	희정당등	저승전			만수전등	집상전 (편수)		
金應善	통명전		저승전	대조전등			영녕전	집상전 (편수)	남별전
吳鳳鶴		인정전월랑 (편수)	손지가 (편수)			춘휘전			
李小知	통명전		취선당 (편수)	대조전등		만수전			
李春奉		보경당등 (편수)	손지가 (편수)	대조전등	춘휘전월랑 (편수)				
文景生	양화당	선정전 (편수)	취선당 (편당)			춘휘전			
成可應伊		대조전	손지가			만수전	영녕전	집상전	
申金	양화당	대조전	손지가	대조전 태화당	춘휘전월랑				남별전
李論生			손지가	태화당	만수전	영녕전	집상전		남별전

표2 17세기 궁궐건축공사에 종사한 주요 목수편수의 활동내용(각 의례서에 의함)

맡은 사람으로 김응선의 경우 1633년 창경궁공사에서부터 1677년 남별전공사까지 무려 44년간이나 목수일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이들은 거의 평생 동안 궁궐공사에 종사한 목수가 되는 셈이다.

④ 文景生 : 문경생은 4차례 공사에 종사하고 그중 창덕궁수리와 저승전수리 때 편수를 맡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가 도성에 살던 목수가 아니고 경기도 지평(智平)에 거주하던 지방 장인이었다는 점이다. 문에 대해서는 창덕궁 수리도감의례나 저승전의례 및 만수전의례에 거의 거주지가 지평임을 밝히고 있다. 당시 이들 공사는 도성내 장인은 물론 지방 거주 장인들도 상당수 동원하여 조성하였으며 문경생 외에도 수많은 목수가 공사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많은 지방목수 가운데 유독 문경생만이 편수를 두 번 맡은 것이다. 창덕궁공사에서는 제4소에서 혼자서 편수가 되어 선정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맡

았고 저승전 때는 우소에서 이소지와 함께 들이서 편수가 되어 취선당 작업을 맡았다. 지방의 작은 고을인 지평에 거주하는 목수가 연속해서 4차례나 궁궐공사에 종사한 것도 주목되지만 그가 선정전과 같은 창덕궁의 편전 건물공사를 단독으로 편수가 되어 일했다는 사실에서 당시 문경생의 기술이 널리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지방 장인의 기술수준이 도성 장인에 못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⑤ 成可應伊, 申金, 李論生 : 이들은 비록 편수는 한 번도 되지 못한 목수들이지만 당시 궁궐공사에 5, 6차례나 연속해서 종사한 인물들이다. 이중 신금은 앞의 김응선처럼 1633년 창경궁공사부터 1677년 남별전공사까지 44년간 6차례에 걸쳐 공사에 종사하였고 나머지 목수들은 다섯차례의 기록을 갖고있다.

이들 외에도 4차례 또는 3차례 정도 연속해서 공사에 종사한 목수는 2, 30명을 헤아릴 정도이며 이처럼 당시의 궁궐공사는 같은 인물들이 연속해

서 공사에 종사한 특징을 갖는다.

목수편수를 비롯하여 많은 장인들이 연속해서 각 궁궐 전각 공사에 종사함에 따라 당시 이들에 의해 조성된 궁궐 전각들은 서로간에 강한 공통점을 갖고 지어졌다고 짐작된다. 특히 목수편수들은 구조형식이나 부재 세부의 처리 등 건물의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거의 전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목수편수일을 같은 인물이 연속해서 맡아 지었다는 것은 결국 당시 지어진 건물이 상호 공통된 구조나 세부형상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유구가 남아 있는 궁궐 건물가운데 17세기에 지어진 것은 창덕궁 선정전 하나뿐이다. 이 건물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지평에 살던 목수 문경생이 편수일을 맡아 조성한 것으로 지금 유일하게 17세기에 지어진 모습을 전하고 있다. 나머지 다른 건물들이 남아 있지 않아 과연 당시 조성된 각 궁궐 전각사이에 어떤 공통된 점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건물 조성에 종사한 공장들 특히 목수편수들의 활동을 볼 때 각 건물들간에는 일정한 공통성이 유지되어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V. 맺는글

17세기 일련의 궁궐 건축공사는 철저한 관직영 체제에 의해 고위 관료가 공사의 전체 책임을 맡고 그 아래 여러 관리들이 작업을 감독하여 이루어졌으며 실제 작업에 있어서는 몇 개의 작업소

로 나누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작업소는 공사가 여러 건물을 한꺼번에 지을 때는 몇 동의 건물별로 구성되고 단일 건물을 짓는 공사일 때는 목조부, 석조부, 지붕 및 칠공사부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장들은 각 작업소별로 조직되었다. 공장 가운데 우두머리격인 편수는 석수 목수 니장 등 주요 직종에 한해서 1명 또는 2명 정도가 있었다.

이들 편수가운데 목수편수는 건물의 구조나 세부부재의 형상 등을 결정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였으며 건물 전체의 계획이나 배치 및 좌향을 결정하는 등의 작업에서는 다른 고위 관료들이나 지관 등이 여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므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참여에 그쳤다고 그 역할을 정의 내릴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여러 궁궐공사에는 연속적으로 공사에 종사한 많은 목수와 목수편수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꼭기종은 당시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한 목수편수였으며 그 밖에 이춘봉이 제2인자의 활동을 하였고 문경생은 이색적으로 경기도 지평에 거주하는 지방목수로서 궁궐공사에 몇 차례 편수를 맡았던 인물로 주목된다.

17세기 궁궐건축공사는 이처럼 같은 인물들이 연속적으로 목수편수 또는 일반 목수로 종사하여 진행되었으며 목수편수의 역할이 구조형식이나 부재 세부 처리의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지어진 일련의 궁궐 건축물들은 서로 공통된 구조나 세부형태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